

##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강연석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 Abstract

#### The computerized management of the original text for the database of Hyangyakjipseongbang (鄉藥集成方)

Kang Yeon-Seok,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85 books were compiled into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at the period of the king Sejong(世宗). That books were assembled in the late stage of the Korea dynasty(高麗) and the first stage of the Chosun dynasty(朝鮮). It is a great work on medicine and a textbook of native herbs representating independent medicine of the dynasty of Chosun. The original text was written in technical chinese character terms and this was processed with a newly developed text cognizance program which helped decrease the time and energy needed and increase accuracy. We hope that the ground work and experience gained from this process would be analyzed and used for future in computerized information management for medical classic literature.

**Key words:** Hyangyakjipseongbang, database, edition type, text cognizance, correcting

### I. 序 論

『鄉藥集成方』은 『醫方類聚』와 함께 세종대 대단위 의서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형 의서이다. 특히 여말선초를 풍미한 자주의학의 기치 아래 진행된 향약

류 의서 중 가장 대표적인 의서로 전 85권의 방대한 규모에다 당시 중국과 우리 나라 역대 의서의 주요 처방이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까지 두루 사용되어 독자적인 경험의학을 형성케 하는 등 한의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향약본초는 자국산 한약

제의 개발과 의약에 있어서 宜土性이 강조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조선에서 여러 차례 중간을 거듭하고 『의림촬요』, 『동의보감』 등 역대 한의서에 대표적인 자국 의서에서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현재 完帙의 印本이 남아 있지 않으며, 초간본의 전존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제침략의 와중에서 일실의 우려에 있었던 이 책은 다행히도 1441년 전존한 필사본을 토대로 활자인쇄본이 마련되어 세간에 널리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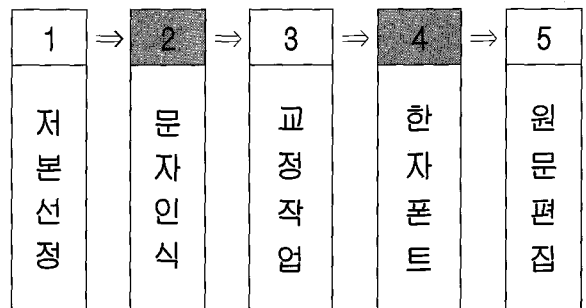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가장 수요도가 높아야 할 한의학 분야에서는 인용문헌에 대한 고찰 이외에는 전면적인 내용 연구나 문헌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여러 판본을 수집하여 필사원문을 마련하고 국역을 진행하여 동의학총서의 하나로 발간하였다.<sup>2)</sup> 또 1997년 중국에서도 간자체 교감본을 출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학계로 하여금 연구를 위한 기초 문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의학연구원에서는 1997년 이래 역대 한의 고전문헌에 대한 정리와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방유취』를 필두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미 주 내용이 연구 완료된 『의방유취』의 상용화에 앞서 상호 연계성이 높고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추진이 곤란한 『향약집성방』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서두르기로 하였다. 이에 먼저 『향약집성방』 원문의 전문을 새로 개발된 문자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처리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기에 이 과정에서 얻어진 기초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고전문헌정보의 전산화에 응용하고자 한다.

## II. 本 論

고전문헌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저본의 선정, 대본의 확정(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원문의 전산입력), 교감, 표점 혹은 구두, 국역, 교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과정은 편집원칙이나 최종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 혹은 생략되며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한자로 작성된 고전문헌의 경우, 원문의 전산처리는 중국의 간체자본 외에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며 워드프로그램의 확장한자를 모두 동원해도 전문의학서를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기존의 방식을 다소 변형하여 새로이 시도된 향약집성방의 전산처리 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3)</sup>



『鄉藥集成方』 원문의 전산처리 과정

1) 이 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의학사, 문헌해제 외에 국어학 분야의 향명표기, 국사학 분야의 여말선초 향약론, 정치사상적 배경 등이 분야별로 검토된 바 있다. 향약집성방의 종합적 검토(제26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진단학회, 1998.

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3) 『鄉藥集成方』의 원문처리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방유취』의 입력방식과 다르게 진행된 단계는 음영을 넣어 표시하였다.

# 1. 저본의 선정

저본의 선정을 위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주요 고판본과 근현대 판본을 의서지와 고서목록, 주요 도서관의 소장목록을 통해 간략 조사하였다.

## 1.1 조선 판본

- 1) 세종 15년(1433) 初刊本  
전존상태: 佚, 世宗實錄  
특점: 權採序,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 撰
- 2) 성종 9년(1478) 小字木版本  
전존상태: 零本, 成宗實錄  
소장처: 일본제국도서관, 武田杏雨書屋, 서울대 소장
- 3) 성종 9년(1478) 鄉藥本草 增補本  
전존상태: 佚, 成宗實錄  
특점: 이후 발견된 약재와 採取乾正의 방법을 첨가하여 鄉藥本草 증보
- 4) 성종 10년(1479) 圖說本  
전존상태: 佚, 成宗實錄  
특점: 唐本을 토대로 鄉藥本草 圖說1卷을 그림
- 5) 성종 19년(1488) 諺解本  
전존상태: 佚, 成宗實錄  
특점: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抄錄하여 諺解
- 6) 인조 11년(1633) 訓練都監小活字版本  
전존상태: 일부,  
소장처: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정문연, 조병순, 김두중  
특점: 崔鳴吉跋, 補遺 1卷
- 7) 필사본: 崔南善 完本, 三木榮 30책 完本
- 8) 기타 內醫院字本 등

## 1.2 근현대 간행본

- 1) 1942년 沿活字本  
발행: 서울 행림서원

- 특점: 崔南善本을 대본으로 이태호 간행, 東州 崔南善 중간서, 三木榮 해설
- 2) 1984년 필사국역본 북한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특점: 동의과학연구소 동의학총서 국역, 원문 필사 간행, 여강, 까치 영인 보급
- 3) 1989년 국역본  
발행: 서울 영림사  
특점: 국역간행
- 4) 1994년 한국의학대계 영인본  
영인: 서울 여강출판사
- 5) 1997년 교점본  
발행: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특점: 북한 필사국역본 대본, 간자체 원문, 교감주해

이상의 간략한 고찰에서 조선조 판본은 1)초간본과 성종대의 몇 종의 2)증보본, 인조대의 3)활자본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이중 1), 2)는 실전되어 기록만 남아 있고 3)의 인조대 중간본만이 그나마 일본에 잔존하여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여타 필사본류는 행림서원 연활자본의 대본으로 인용되었고 현소장처는 불명이다. 근현대 간행본은 크게 원문교감본 즉, 1)과 4), 5)의 경우와 국역본 2)와 3)으로 나뉘지며, 이중 원문에 있어서는 1)의 신석연활자본과 4)의 영인본이 가장 원본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4)의 경우, 인조중간본과 필사본이 무작위로 섞여 있어 대본이 일관성이 없다. 2)의 경우도 1)을 토대로 교감하여 다시 필사한 원문을 마련했으나 교기가 붙어 있지 않아 교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조선판본으로는 전문을 처리할 수 없고 근현대 간본 중에서는 행림서원본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산처리에 있어서 문자인식이라는 것은 선과 여백으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에 입력된 글자의 모양과 비교하여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다. 때문에 문자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자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조건 역시 저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필사본의 경우는 글자의 모양이 독특하

다거나, 글자의 간격이 일정치 않다거나, 흘러 쓴 부분이 있으면 문자의 인식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저본의 상태가 저저분하거나 종이 자체에 이물질이 많은 것은 글자 뿐 아니라 이물질조차 글자로 읽으려 하기 때문에 오자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활자체로 인쇄된 깨끗한 판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위의 조사를 통해 원질의 조선판이 없는 점과 문자인식율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판본으로는 행림서원 활자본이 선정되었다.

### 2. 문자인식

『의방유취』 266권의 원문전산 처리에는 약 10개월 동안 한의학연구원의 연구원 2명, 한의사 1명, 한의과대학 학부생 등 연인원 180명이 참여하였다.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워드입력하는 방식은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인력을 작업초기부터 다수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입력 의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정교한 교정작업이 다시 필요하다. 『향약집성방』의 원문전산 처리에는 문자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0년 3월~5월 사이에 2명이 초기입력을 진행하였고, 이후 7월과 9월 두 달 동안만 120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교정작업만을 진행하였다. 이후 정교한 교정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워드입력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 2.1 이미지 읽기(scanning) : 서적을 이미지 파일로 전환

행림서원 중간본은 B5용지 정도의 크기에 鍼灸目錄, 鄉藥產地別을 합쳐 모두 732쪽으로 3단, 세로쓰기되어 있다. 한명이 문자인식에 적합한 line art 방식, 해상도 400dpi로 이미지를 읽어들이어 tif 형태의 이미지 파일을

페이지별로 저장하였다. 약 1.0 Mbyte 정도로 총 729Mbytes의 화일이 만들어졌다.

스캐닝은 저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상도와 밝기를 선택하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해상도가 너무 높아지면 저본에 있는 티끌이나 잘못 찍힌 것까지 읽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실제로 행림서원 중간본은 해상도 200~300dpi 정도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자인식이 되었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군데군데 두 겹게 인쇄된 글자들은 뭉개져서 잘못 읽게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

『의방유취』의 입력 때와 달리 한의학 원전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캐닝 작업에 익숙한 작업자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1. 초기 이미지 파일

### 2.2 문자인식 : 이미지(image) 파일을 텍스트(txt) 파일로 전환

○○정보통신(주)의 My-Qreader2.0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스캐너를 SCSI 방식으로 연결하면 프로그램에서 곧바로 이미지 파일을 읽어들이어서 문자인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 이미지 파일로 읽어들이는 작업을 먼저 하고, 이후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에서 불러 문자인식을 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본의 상태에 따라 늘 틀리게 읽는 문자들을 사용자사전에 등록하여 항상 약속해놓은 글자로 읽어주는 사용자사전이 있다. 주제별로 처음 한두 페이지를 전문가가 문자를 변별하면서 교정하여 사용자사전을 만들어주면 비전문가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작업단계의 결과물은 txt 형태이기 때문에 윈도우 상에 없는 한자는 깨지거나 다른 글자로 읽어진다. 이런 한자들을 한글 발음대로 사용자사전에 등록해 준다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또 아래 자료2처럼 일부의 특수기호들도 읽을 수 있다. 저본의 상태에 따라 문단끊기를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선정된 저본은 3단 세로쓰기 편집이 되어 있어서 문단끊기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미지파일 읽기와 마찬가지로 한의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스캐닝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 2.3 한글 파일화 : 텍스트 파일을 한글97(hwp) 파일로 전환

한글 프로그램에서 텍스트파일로 불러와 저장만 세로 하면 되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단계다. 텍스트 파일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한글의 확장한자 뿐 아니

라 잘못 인식된 글자들까지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인식율이 낮은 페이지(원본의 인쇄상태가 나쁜 것, 스캔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 복잡하게 생긴 한자)는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손이 들 수도 있다. 자료3의 \*은 한글에 없는 한자를 이후에 만들어 입력하기 위해 표시해 둔 것이다.

鄉藥集成方 卷第一 風門【直指方】諸曰氣血痰水受病於內者也風寒暑濕致寇於外者也人一 身血氣既虛陰陽不守飲食居清嗜飲無節風地調護不加於是經絡空疎予理開徹風邪乘其虛而入之中風諸風皆是物耳風之為病善行數變其中人也卒其眩人也暈激人之涎浮昏人之神亂扶細則胃隨緩弛挾寒則急痛拘攣自其邪氣之入人也邪氣反緩正氣反急正氣邪邪為外辭為竊視為視縱為昏目為單瞳為反張在於陽則皮膚緩在於陰則腹裏急緩則四肢不能收急則 一身不能仰背隨其邪氣所至表裏淺深而諸證發焉種類雖多大有四血氣偏虛半身不遂肌肉枯瘦骨間疼痛謂之偏枯神智不亂身體無痛四肢不舉 一 臂不隨謂之風 (能言則可治)忽然迷早舌強不語喉中塞塞墮隨有聲謂之風吟(身軟有汗則生)風溼濕三風合而為痺其人肉厚身頑不知痛風多則走注寒多則疼痛濕多則重着在筋則筋屈而不伸在脈則血凝而不流在肉則不仁在骨則 重大是之謂風痺大抵風家名種雖殊而其發為煩燥頭痛而光惡風白汗證狀同歸脈浮者病在表宜發散之 脈實者病在裏宜 疎導之 脈虛者病在臟宜溫之 脈促者病在上宜吐瀉之中風失音不語【聖惠方】論曰夫喉者氣之所以上下也喉者聲音之門戶也舌者聲之機口者聲之為也風寒客於喉脈之間故卒然無音皆由風邪所陽致致失音不語也又醉臥當風令人失音也【朱氏集驗方】治失音不語精神昏如能言語牙關緊急者細辛搗細末鼻裏或開牙【又方】白梅擦牙更以薑蒲末着舌下牙關即開倉卒可用【聖惠方】【竹瀝飲子】治中風失音不語昏沉不識人竹瀝二合煎瀝二合消梨汁二合陳醋汁半合○右相和微煖細細灌口中即差【清瀉飲子】治中風失音不語手腳轉動不得煎瀝三合生葛根汁二合蜜一匙竹瀝三合○右相和令勻不計時溫服二合治中風失音立效大豆(三升淘令淨)以水五升煮令為去豆煎取汁如膏少少含嚥津頻服【又方】豆或煮取濃汁放溫稍服之【三和了方】濃袁汁汁合之【經驗良方】治失音槐花瓦上炒令香熟於地上出火毒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亦治咯血【千金方】治中風失音并一切風疾及小【斗客杵男子陰產女子帶下白濁蠶七枚】為末酒調服方寸匙立效【本草】治卒闕風失音不語生梨搗汁一合頓服之白再治失音不語吃病緩頭細手令痛即語嬰左女右【著者奉御番】【回聲飲子】治失音息角(一挺刮去黑皮并子)蘿蔔三箇切作片○右以坐同煎至半碗以下服之不過 三服說話嬰邦諸傷更妙發失【千金方】中風失音不能言語縱不隨先灸[天窓]五十壯息火仍移灸[百倉]五十壯畢還灸[天窓]五十壯若始發先灸[百倉]則風氣不得泄內攻五臟昏閉伏仍失音也所以先灸[天窓]次灸[百倉]一灸五十壯悉泄火勢復灸之視病輕重重者三百壯人效凡中風服藥益劇者但是風穴悉皆灸之三壯無不愈也脾風山候聲不出或上下手一灸手指頭次灸[人中]次灸[人樞]次灸兩耳門前脈去耳門上下行一寸是各七壯治脾風(俗呼為八風)灸[脾寸]俠脊兩邊各五十壯[明堂經]云舌急不言如何治答曰舌急鍼[心]門舌舌緩鍼[風府]得氣即瀉可小劑鍼入八分留三呼瀉五吸瀉盡更留鍼取之得氣即瀉

자료2. 1차로 문자인식을 한 텍스트 문서

鄉藥集成方 卷第一  
風門

【直指方】論曰氣血痰水受病於內者也風寒暑濕致寇於外者也人之一身血氣既虛陰陽不守飲食居處嗜欲無節衝風臥地調護不加於是經絡空疎腠理開微風邪乘其虛而入之中風諸風皆為物耳風之為病善行數變其中人也卒其眩人也暈激人之涎浮昏人之神亂挾熱則痙攣緩弛挾寒則急痛拘攣自其邪氣之入人也邪氣反緩正氣反急正氣引邪為喘僻為窺視為掣縱為撻擗為癱瘓為反張在於陽則皮膚緩在於陰則腹裏急緩則四肢不能收急則一身不能仰皆隨其邪氣所至表裏淺深而諸證發焉種類雖多大要有四血氣偏虛半身不遂肌肉枯瘦骨間疼痛謂之偏枯神智不亂身體無痛四肢不舉一臂不隨謂之風痲(能言則可治)忽然迷仆舌強不語喉中窒塞噎噎有聲謂之風癱(身軟有汗則生)風寒濕三氣合而為痺其人肉厚身頑不知痛癢風多則走注寒多則疼痛濕多則重着在筋則筋屈而不伸在脈則血凝而不流在肉則不仁在骨則癱重夫是之謂風痺大抵風家名種雖殊而其發熱煩燥頭痛面光惡風自汗證狀同歸脈浮者病在表宜發散之脈實者病在裏宜疎導之脈虛者病在臟宜溫之脈促者病在上宜吐湧之中風失音不語

【聖惠方】論曰夫喉嚨者氣之所以上下也喉喉者聲音之門戶也舌者聲之機口者聲之為也風寒客於喉喉之間故卒然無音皆由風邪所傷故致失音不語也又醉臥當風令人失音也

【朱氏集驗方】治失音不語精神昏愈如能言語關緊急者細辛搗細末搗鼻或揩牙[又方]白梅擦牙更以菴蒲末着舌下牙關即開倉卒可用

【聖惠方】竹瀝飲子治中風失音不語昏沈不識人竹瀝二合菴瀝二合消梨汁二合陳醬汁半合○右相和微煖細細灌口中即差

【菴瀝飲子】治中風失音不語手腳轉動不得菴瀝三合生葛根汁二合蜜一匙竹瀝三合○右相和令均不計時溫服二合治中風失音立效大豆(三升淘令淨)以水五升煮令爛去豆煎取汁如膏少少含津頻服效[又方]豆豉煮取濃汁放溫稍服之[三和子方]濃煮豉汁合之

【經驗良方】治失音槐花瓦上炒令香熟於地上出火毒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亦治咯血

【千金方】治中風失音并一切風疾及小兒客忤男子陰虛女子帶下白蠶(七枚)為末酒調服方寸匙立效

【本草】治卒闕風失音不語生梨搗汁一合頓服之日再治失音不語吃病後頭刺手心令痛即語男左女右

【着者奉細審】[回齋飲子]治失音皂角(一挺刮去黑皮并子)蘿蔔三錢\*切作片○右以水二碗同煎至半碗以下服之不過三服便語喫[羅金\*]更妙

灸法【千金方】中風失音不能言語縱不隨先灸[天窓]五十壯息火仍移灸[百會]五十壯畢還灸[天窓]五十壯若始發先灸[百會]則風氣不得泄內攻五臟喜閉伏仍失音也所以先灸[天窓]次灸[百會]一灸五十壯悉泄火勢復灸之視病輕重者三百壯大效凡中風服藥益劇者但是風穴悉皆灸之三壯無不愈也脾風占候聲不出或上下手灸十指頭次灸[人中]次灸[大椎]次灸兩耳門前脈去耳門上下行一寸是各七壯治脾風(俗呼為八風)灸[脾俞]俠脊兩邊各五十壯[明堂經]云舌急不言如何治答曰舌急鍼[瘧門]舌古續鍼[風府]得氣即瀉可小\*鍼入八分留三呼瀉五吸瀉盡更留鍼取之得氣即瀉

자료3. 텍스트 문서를 1차로 전환한 한글97 파일

### 3. 교정작업

#### 3.1 문단구분 및 구두점 찍기

중국중의약출판사의 교주본은 구두점과 校記가 달려 있어 可讀力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단락 구분이 너

무 세밀하여 오히려 내용과약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행림서원 원화자는 구두나 방점이 없지만 인용문헌, 경혈과 문단표시를 잘해놨서 내용과약이 쉽게 되어있다. 때문에 두 가지 교본을 잘 비교해가면서 구두점을 찍고 문단을 나눴으며, 인용문헌과 경혈표시를 하였다. 의심 적은 부분들은 여강출판사 영인판을 참고하면서 내용이나 문자에 변이가 있는 부분에 교정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각주처리하였다.

#### 3.2 한글워디안 파일화 : 한글97 파일을 한글워디안 파일로 전환

한글워디안은 한글97에 없는 한자들에 대해서 ‘문자표(Ctrl+F10)’에 많은 이미지를 제작해 놓았다. 윈도우 98 상의 ‘사용자문자편집기’로 이미지 글꼴을 제작하는 것보다 한글워디안에 있는 글꼴을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글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워디안 파일은 한글97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므로 한글97에서 열 수 없는 단점이 생긴다. 이후 파일의 교환이나 교정 작업에 참고해야 할 점이다.

### 4. 한자 만들기

이 작업에 앞서 한의과대학학생들이 만든 『東醫寶鑑』의 한글 파일에서는 비트맵 형태의 이미지 글꼴을 C:\Hnc\Font\user.hft에 저장하여 ‘문자표(Ctrl+F10)/사용자정의(전각)’ 영역에서 활용한 바 있다.

본 『鄉藥集成方』은 윈도우즈98의 “시작/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사용자정의문자편집기”를 이용하여 트루타입의 이미지 글꼴을 제작한 후 유니코드 상의 ‘표준 EUCD 글꼴’에 저장하여 사용했다.4) 범위는 C9A1~C9FE, FEA1~FEFE의 두가지로 각 94개씩 모두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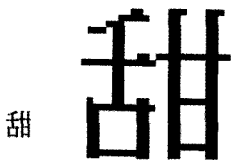
4) 경희대학교 한의학연구소의 『東洋醫學大辭典』이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7기 졸업생들이 만든 『景岳全書』의 전산파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개의 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 C:\Windows\ eudc.euf에 저장하며 만약 기존 eudc.euf 파일이 있다면 따로 백업(back up)을 받아놓고 덮어쓰기를 하면 된다. 한글97이나 한글워디안을 종료시킨 상태에서 C:\Hnc\User\Cache\Hncw.fsv을 지우고 한글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모양글자모양(Alt+L)에서 ‘글꼴종류/사용자’와 ‘글꼴/바탕, 굴림, 돋움, 궁서’를 선택하면 ‘문자표(Ctrl+F10)/사용자정의(반각)’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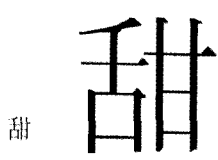
이 글꼴은 기존의 글꼴을 이용해서 조합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안정된 형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작업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합하지 않고 그리거나 글자를 축소, 확대하면 글자모양이 어그러지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東醫寶鑑』 입력 때처럼 비트맵 이미지가 아니라 트루타입 이미지로 글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숙련된 작업가가 아니면 글자가 매끄럽지 못하다.

자료4와 자료5에서 보는 바대로 비트맵 글꼴은 하나의 글자를 일정한 개수의 칸으로 나누어 점을 찍기 때문에 글자가 커지면 사선 부분이 계단형으로 이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루타입 글꼴은 글자의 외곽선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하여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비록 트루타입 글꼴을 써서 보기에는 조금 편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트맵 글꼴과 마찬가지로 이미지글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점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전문헌데이터베이스의 약점으로 상용화프로그램 개발시 검색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일부를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료4. 비트맵 글꼴



자료5. 트루타입 글꼴

## 5. 전산파일의 편집

### 5.1 『향약집성방』의 체제

『향약집성방』의 初刊本이 남아있지 않아 원래의 체제와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다. 또 여러 차례 重刊된 것들조차 完本이 없고, 중간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朝鮮王朝實錄』의 記事들로 보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향약집성방』의 체제는 初刊本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현재 간략조사된 바에 따라 1622년에 중간된 훈련도감 활자본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본문의 맨 앞에는 鍼灸目錄이 실려있고, 1~53卷까지는 病證別로 46개의 門으로 분류되어 있다. 54~74卷에는 婦人科와 小兒科가 있는데 부인과의 경우는 병증에 따라 10개의 門을 두고 있으며, 小兒科는 門과 같은 수준으로 두었다. 또 76~85卷의 鄉藥本草는 ‘鄉藥本草概論’과 ‘鄉藥本草各論’으로 분류하였다. 소아과와 향약본초의 사이에는 補遺가 들어 있다.

이후 좀 더 고증해 보아야 할 점은 본문 앞에 있는 ‘鍼灸目錄’과 74卷과 75卷 사이에 있는 ‘補遺’ 한권, 그리고 78卷에 있는 ‘諸品藥石炮製法度’이다. 鍼灸目錄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권에 포함되지 않고 卷頭에 두었으며, 특히 金信根이 영인한 한국의학대계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그가 쓴 解題에는 권두에 침구목록이 있다고 밝혀 놓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補遺는 崔鳴吉의 跋文에 “『鄉藥集成方』이 폐절된지 백여년이 지나 남은 책들을 수집하였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완벽한 판본을 구하던 차에 耽羅에서 얻게 되었고, 또한 補遺 1권을 구하여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sup>5)</sup>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633년 훈련도감 활자본이 만들어질 때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諸品藥石炮製法度は 1433년 權探의 序文에 “옛 책의 증상은 338개였는데 여기에서는 959개가 되었고, 옛 처방은 2,803개였는데 여기에서는 10,706개가 되었으며 鍼灸法 1,476조와

鄉藥本草와 炮劑法을 첨가하였다.”는 구절로 보아 初刊本에 炮劑法이 들어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종 9년 11월25일 기사에 “전에 찬집(撰集)한 《향약집성방》·《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바치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아울러 모두 찬집(撰集)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sup>6)</sup>, 7)라는 구절이 있는 점, 전체 85권의 각권 분량이 대부분 일정한데 유독 향약본초총론이 실린 76권의 분량이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첨가되었거나 새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1943년 행림서원 연활자본은 훈련도감 소활자본과 대동소이한 편제를 가진다. 본문에는 한문으로 쓰여진 ‘按’이, 鄉藥本草에는 ‘註’가 일부 첨가되었다. 85권의 책을 세권으로 묶었으며, 卷頭에는 최남선의 重刊序, 三木榮의 해설, 잔존하는 판본의 사진을, 卷末에는 ‘鄉藥產地別’을 덧붙였다.

### 5.2 전산처리된 『향약집성방』의 체제

행림서원 연활자본을 저본으로 삼아 입력하였기 때문에 기본토대는 행림서원본과 같다. 그러나 행림서원본과 달리 중국중의약출판사의 표점본을 참고하여 표점을 찍었으며, 보기 편하도록 다음과 같이 편집하였다.

<p>鄉藥集成方 卷第一</p> <p>1. 中風門</p> <p>《直指方》論曰 氣血痰水, 受病於內者也, 風寒暑濕, 致寇於外者也. 人之一身, 血氣既虛, 陰陽不守, 飲食居處, 嗜欲無節, 衝風臥地, 調護不加, 於是經絡空疎, 腠理開微, 風邪乘其虛而入之, 中風諸風皆是物耳. (중간생략) 脈浮者病在表, 宜發散之. 脈實者病在裏, 宜疏導之. 脈虛者病在臟, 宜溫之. 脈促者病在上, 宜吐湧之.</p> <p>1.1 中風失音不語</p> <p>《聖惠方》論曰 夫喉嚨者, 氣之所以上下也. 喉厭者, 聲音之門戶也. 舌者, 聲之機. 口者, 聲之扇也. 風寒客於喉厭之間, 故卒然無音, 皆由風邪所傷, 故致失音不語也. 又醉臥當風, 令人失音也.</p> <p>《朱氏集驗方》治失音不語, 精神昏憤, 如能言語, 牙關緊急者. 細辛, 搗細末, 掃鼻或揩牙. 又方 白梅擦牙, 更以菖蒲末着舌下, 牙關即開, 倉卒可用.</p>	<p>--&gt; 권 표시</p> <p>--&gt; 門 별 제목 (제2수준)</p> <p>--&gt; 門 전체 醫論</p> <p>--&gt; 세부병증분류 (제3수준)</p> <p>--&gt; 세부병증 아래 醫論</p> <p>--&gt; 主治, 處方, 服用法 등</p>
--	---

자료6. 최종입력된 파일의 형태

5) 時鄉方廢且百餘年, 厘厘收拾卷, 帙不全. 購求完本, 得諸耽羅, 又得補遺一卷, 刊成一帙.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서울, 1995.

7) 『成宗實錄』卷98, p.264., 1979: 在前撰集鄉藥本草, 諸藥採取乾正之法, 未盡載錄. 非唯未盡載錄, 隨後見出典用藥材, 亦不添錄. 故各官貢藥, 任意採取, 失其本性, 治病無效, 甚爲未便, 并詳悉撰集, 開判廣布.

8) 김신근의 해제에는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총론에 諸品藥石炮製法度가 附記되었다고 하였다.



1~53卷의 병증별 분류를 첫번째 묶음으로, 54~75卷의 婦人科·小兒科·補遺를 두번째 묶음으로, 76~85卷의 鄉藥本草를 세번째 묶음으로 하여 제 1수준으로 하였고, 門을 제 2수준으로, 세부병증별 소제목을 제 3수준, 鍼灸法을 제 4수준으로 하여 편집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별도로 편집되어 본문의 맨 앞에 있던 '鍼灸目錄'은 가장 뒷부분에 있는 '跋文' 앞에 놓았으며, 행림서원본의 '鄉藥產地別'은 '鍼灸目錄' 앞에 두어 '색인'으로 본문과 분리하였다.

原序, 重刊序 鍼灸目錄	風病門 中風失音不語 中風口噤不開 中風不得語 一切風通用方 傷寒門 可寒形證 熱病門 諸救急門 調經門 產後門	鍼灸法 鍼灸法	小兒序論 小兒雜病
婦人科			
小兒科			
補遺			
鄉藥本草	鄉藥本草概論 指南總論 諸品藥石炮製法度 鄉藥本草各論 石部上品 石部中品 藥部下品	論處方法 用藥酒洗蒸乾例 石部 菜部 雲母 苦瓠 菱蓐	
跋文 鄉藥產地別			

자료7. 행림서원 연활자본 『향약집성방』의 체제

5.3 초기 데이터베이스화 : 제목번호와 색인 만들기

목차 역시 행림서원 연활자본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권두의 목차와 실제 본문중의 제목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본문의 제목에 따라 고쳤다. 찾아보기 편하도록 門 아래의 소제목까지 고유번호를 부여<sup>9)</sup>한 상세 목차를 만들었다.

1,992개의 처방 표제어, 761개의 본초 표제어, 297개의 침구 표제어에 대한 색인을 달았다. 인용문헌에 대한 표제어는 출전의 선후관계와 정확한 명칭에 대한 고증이 더 필요한 작업이므로 생략하였다. 향후 본초 색인은 본문 전체에 대한 색인을 구성해야 하며, 침구 표제어는 침구목록과 연결지어 색인을 만들어 추가해야 할 것이다. 처방 표제어는 판본마다 다르게 표시된 것들이 많으므로 좀 더 깊은 고증이 필요하다.

III. 結 論

『향약집성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원문의 전산정보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한글 워드입력방식을 지양하고 문자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견을 얻었다.

첫째, 저본의 선정에 있어서는 한지상태의 필사본류는 아직 문자인식율이 낮아 활용하기 곤란하나 이번에서본으로 선택한 연활자본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였다.

둘째, 『의방유취』의 입력 때와 달리 문자인식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초기입력에 투입되는 고급인력을 크게 줄여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꾀할 수 있었다.

셋째, 한글로 입력된 파일을 통해 처방, 본초, 침구에 대한 색인과 고유번호를 부여한 상세목차를 얻어 초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9) 자료6의 제목에 붙어 있는 번호.

참고 문헌

1. 郭洪耀,李志庸 校注. 『鄉藥集成方』,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2. 김동일 외 역편. 『향약집성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6.
3. 김신근 편. 『鄉藥集成方』(韓國醫學大系3-6), 麗江出版社, 서울, 1994.
4. 김신근 편.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7.
5. 김현. 한국고전적전산화의 성과와 과제-조선왕조실록 CD-ROM 개발사업의 경과와 발전방향(한국고전적정리사업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추진회 창립30주년 기념학술회의 1995.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시스템(주)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서울, 1995.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成宗實錄』卷98, p.264., 1979.
8. 신민교, 박경, 맹웅재 역. 『國譯鄉藥集成方』, 永林社, 서울, 1989.
9. 『歷代 韓醫學文獻의 考證II』,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1997.
10. 안상우 외.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회, 서울, 1998.
11. 안상우 외. 『전통한의처방의 전산검색시스템구성』,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1999.
12. 이태호 편. 『鄉藥集成方』, 杏林書院, 서울, 1943.
13.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韓國古代醫藥書展目錄(西洋醫藥傳來史展·韓國古代醫藥器展), 1966.
14. 허봉희. 향약집성방의 약학적 연구와 DATA BASE화(향약집성방의 종합적 검토). 진단학회, 제26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엄, 1998.



자료8. 『향약집성방』 원문의 최종편집형태

넷째, 트루타입 글꼴을 제작하여 미려한 한자글꼴을 입력했으나 전산검색에 장애가 있는 이미지 글꼴이라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발전된 기술의 도입과 다양한 검색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색인어> 『향약집성방』, 데이터베이스, 판본, 문자인식, 교감